

전북 농업,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

지역특화 농업구조 전환 TF 구성
식량·채소·과수·특용작물 분야별
기후·시장 변화 대응 품목 발굴
생산·가공·유통 연계 소득 향상 추진

전북도가 기후변화와 농산물 소비·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농업구조 전환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비와 생산성, 가공·유통 여건,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과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TF는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4

개 분야로 구성된다.

전북도와 농업기술원을 비롯해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농협, 생산자단체, 선도농가, 식품·가공기업 등이 참여해 품목별 생산·유통·가공 구조와 시장 여건을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식량 분야는 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가공에 적합한 고품질 원료의 규격화와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한 가공·상품화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적정 생산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채소 분야는 배추·무·마늘·양파 등 주요 노지채소의 생산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품종·재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과채

류는 시장성이 높은 품종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유통 효율화와 수출 확대 가능성도 검토한다.

과수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동부권 고랭지사와 등을 중심으로 기후 적응형 품종 전환과 재해경감 시설·장비 확충,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모델 등을 검토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특용작물 분야는 감초·지황·작약·천마·오미자·홍삼 등 도내 주요 특용작물을 식품·음료(F&B) 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소비경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과 권역별 산지 연계도 추진한다.

도는 TF 논의 과정에서 품목별 생산비와 소득, 시장성 등을 비교·분석해 전

북의 지역적 특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등 농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분야별 TF에서 도출된 과제는 오는 9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7년 신규·대표사업으로 발굴해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와 농가 인구 고령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심화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농업구조 전환은 농촌의 생존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이중당적·유령당원 입당 정리”

김 대표, 당원 정비 TF 구성
전당대회 개선 TF도 설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과정에서 제기된 연설없는 투표, 검증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의 전대평가 및 전대 제도로 발걸음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를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했다”면서 전대 기간 중 제기되었던 각종 여론조사 의혹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유령당원 입당 등



김민석 대표

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임없이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면서 “관련 TF를 당대표 직속에 두겠다”고 밝혔다. 4선의 박병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진보연대 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위원장 이혜식), 영입·확장 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를 두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통합 한국발전공사’ 전북 유치 시동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발의
5개 발전공기업 통합 공사 설립
본사·재생에너지본부 전북 설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분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별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자원의 일관된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



안호영 의원

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 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했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환본부의 회계도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한국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되도록 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32조 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전환본부 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에 필요한 특례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직위가 바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공사는 해당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전직·재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각 발전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한국발전공

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기존 직원과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사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안 의원은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의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는 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양육 아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

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윤준병 의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립등가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춘석, 대북특사 활동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대북특사 국회보고법’ 대표발의
대북정책 견제·책임성 강화 취지

이춘석 의원이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종료 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대북특사 국회 보고 의무화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

북측에 직접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특별사절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령의 메시지를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으나 그 결과를 국회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제안하며 대북특사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중요

기능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북특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사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함께 지켜요"

교통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로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준수

보행자·운전자 언제나 바깥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모두를 위한 행복한 엄중 '운전 졸업'

고령자 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북신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심사 통과

한국경영인증원
전 항목 적합 인정
윤리경영 체계
청렴 우수성 입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한국경영인증원(KMR)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2025' 표준전환 및 정기 사후심사에 통과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인증제도다.

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이다.

전북신보는 지난해 8월 해당 국제인증 최초 획득했다.

특히 이번 전북신보 인증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진 고도화된 최신 개정판(ISO 37001:2025) 표준전환 심사와 사후관리 심사 모든 항목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청렴·윤리경영 체계 우수성을 재공인을 받으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요 인증에서 전북신보는 △RPA(프로세스 자동화) 기반 상시·종합 감사 체계 구축 △전 부점 청렴리더(18명) 운영 통한 부패방지 문화 확산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인식조사 응답률 등에서 뛰어난 운영 성과를 나타낸 점이 주요 긍정적 측면으로 꼽혔다.

전북신보는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 관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240여건 부패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오고 있다.

관련해 '블라인드 채용', '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운영', '온-오프라인 클린신고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한국경영인증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2025' 표준전환 및 정기 사후심사에 통과했다.

<사진=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ISO 37001:2025 이어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함없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쌀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추담국악경연대회서 홍보

쌀 소중한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국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는 것이 전북농협의 목표”라며 “우리 쌀 소비 확대에 더욱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아침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쌀 소비를 확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마련

농가 농약 살포 부담 완화
11월 고시 개정 추진 제도
정비 후 현장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시설재배 농가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연막(가열연무)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뿜어 시설 안에 퍼지게 하는 살포 방식으로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이동하며 뿌리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방식에 맞는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이 없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뿌리

는 방식(경엽 처리)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있어, 작물 피해(약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함께 검증할 제도적 기준이 필요했다.

지난 5월 국립농업과학원 성재훈 원장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후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꾸려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도 열어 현장의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을 함께 살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농촌



농촌진흥청은 연무·연막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농진청>

진흥청은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농약 등록 기준 마련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부터 송전망
해상풍력까지… 도민과
함께 에너지 미래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공동 주관 ‘민선9기 도정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9기 도정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도

민에게 알리고 정책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 이원택 도지사과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회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 주제발표에서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새 도정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가 ‘전북 에너지 미래의 설계, 전영환 전 홍익대학

교 교수가 ‘RE100 달성을 위한 송전망 체제’, 위진 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가 ‘전북 서남권 2.4GW 해상풍력 집적단지 추진현안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2부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시민사회 및 에너지 전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정책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계통 보강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주민참여 및 소득창출 모델 등 민선9기 재

생에너지 정책이 실제 지역산업과 도민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도민들이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민선9기 재생에너지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며 현장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순창농협 ‘포용금융 동행창구’ 전북 1호점 오픈

금융취약계층 대상
본격 운영 시작

전북농협은 지난 24일 순창농협(팔덕지점)에서 전북지역 ‘포용금융 동행창구’ 1호점을 오픈하고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전북 1호점 오픈행사는 김성훈 전북본부장,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동행창구’ 운영을 알리고 포용금융 실천의지를 다졌다.

‘포용금융 동행창구’는 고령·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소비가 보

호기반을 확충하고 금융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고객 전용 창구이며 전담 직원이 상주해 큰 글씨 서식과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김성훈 본부장은 “순창농협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92개 모든 농축협에서 포용금융 동행창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도내 전 농축협 영업점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동행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4일 순창농협에서 전북지역 ‘포용금융 동행창구’ 1호점을 오픈하고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전북농협>

농어촌공사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 접수

10월 5일까지… 총 상금 1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제8회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 작품 접수를 오는 10월 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제8회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은 공사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주최로 마련된다. 어도(魚道)는 내수면 생태계와 수산자원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 통로로서 ‘하굿둑’,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에 막힌 상·하류 물속 길이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진 또는 60초 이내 영상(쇼트폼)이다. 올해부터는 쇼트폼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영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려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11월 접수작을 심사해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사진=한국농어촌공사>

3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 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최창석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수산처장은 “다양한 시선이 담긴 작품을 통해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바이오진흥원>

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 성장 토크콘서트’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식품 청년 창업자 및 2세 경영인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농식품기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업화 및 시장 진입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식품기업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질의응답 중심 양방향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위원 6인이 참여해 실무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홍보·마케팅(전북테크노파크 이용진 전문위원) △인사·노무(노무법인한결 양성배 대표노무사) △유통·판로(BGF리테일 박성욱 수석MD) △자금·투자(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성중 총괄본부장, 전북창조경제역

신센터 최재영 본부장) △선배기업 멘토(지리산처럼 정정은 대표)가 참여해 대형 유통망 입점 전략, 투자 유치 방안, 근로계약 및 노무 관리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토크콘서트 이후 분야별 소그룹 심층 상담과 참석자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해 청년 기업가들 간의 교류와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농식품 산업 미래 청년 기업가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역량 강화와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

						
에어컨 26도 설정 하기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사용하지않는 플러그 뽑기	휴대폰 충전 완료시 플러그 뽑기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 하기	문닫고 냉방 영업 하기	영업종료후 간판 옥외등 소등

군산시,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내달 7일까지 모집

군산시는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군산시 문화관광 누리집, 안내책자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각종 위생용품 지원 △형업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군산시 위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등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위생과 식품위생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지역의 맛을 창업으로…

청년 양조가들 익산에 모여

익산시는 오는 26일 청년시청 1층에서 '지역의 맛을 한 잔에 담다'를 주제로 '청년인사이트 슝슝살롱'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올래(로컬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통주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 양조장 창업·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고흥, 광주, 대전, 아산 등 전국 각지의 청년 25명이 전통주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익산을 찾는다.

행사 당일 양조장 관계자들은 제조면허 취득부터 양조장 운영, 유통·판매, 브랜드 구축까지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준다. 참가자들이 창업과 양조장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묻고 답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전통주를 직접 경험하는 시음회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창업 실습으로도 이어간다. 오는 10월에는 참가자들이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보며 제조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미 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주와 지역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현장의 경험을 배우고 자신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주민 소통 돕는다… 한국어교육 운영

정읍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일상·직장생활 소통을 돕기 위해 기초회화와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을 15차례 운영한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정읍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다. 수업은 '기초 한국어 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과정'으로 나뉜다. 기초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배우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화를 익힌다.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과정은 1~2급 취득을 목표로 듣기와 읽기 이론, 기출문제 풀이, 모의시험 등을 진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일상과 직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바이오산업 ‘성장·고용’ 더한다

‘고용혁신 프로젝트’ 바이오기업 9개사 근로자 348명 지원

익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진다.

익산시는 '바이오(BIONE)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 9개사와 근로자 348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오 고용혁신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지원 사업이다. 전북 내 바이오산업 특화 지역인 전주(연구)·익산(생산)·정읍(실증)의 기능을 연계해 바이오산업 통합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

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산학융합원이 전문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수요에 맞춘 4개 분야로 추진된다. 현재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된 2개 분야에서 익산 바이오기업 9개사와 근로자 348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먼저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9개사에 기업별로 최대 4,000만 원 까지 총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생산공정 개선 △시설 구축 △인공지능(AI·디지털) 시스템 도입 △인사·노무 상담 등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원금 1,500만 원당 신규 일자

리 1명 창출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함께 이끌어낸다. 이번에 선정된 익산 기업에서는 사업을 통해 총 13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직과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도 이뤄진다. 익산에서는 전주·익산·정읍 전체 지원 대상의 약 55%에 해당하는 근로자 348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사업 유형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교통비와 장기재직 지원금, 복지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이 기업의 기술·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바이오기업과 인재가 함께 익산에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가 지원 확대 2(題)

농기계 야간 추돌사고 예방

정읍시가 경운기와 트랙터의 야간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주행속도가 느린 농기계가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잘 보이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워 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크다. 등화장치를 설치하면 농기계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등화장치를 새로 설치하려는 농업인이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1개당 1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1개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해 농업인이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정읍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농기계 보급과 도로주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등화장치는 야간에 농기계가 잘 보이도록 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비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영농지도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김장용 가을배추는 8월 중·하순, 가을무는 8월 하순에 씨를 뿌려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적기 파종과 아주심기를 당부했다.

정읍지역의 가을배추 파종 시기는 보통 8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다. 씨를 뿌린 뒤 20~30일이 지나 잎이 3~4장 나왔을 때 밭에 옮겨 심는 것이 알맞다.

배추 아주심기는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간 뒤 흐린 날 오후에 해야 뿌리가 잘 내린다. 아주심기 2~3주 전에는 퇴비와 석회, 분사를 밭에 뿌려 흙과 충분히 섞여줘야 한다. 이랑을 만들 때는 배추 전용 복합비

료를 주는 것이 좋다. 아주심기 후에는 15일 간격으로 3~4차례 웃거름을 나눠 주고,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인 만큼 밭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을무는 8월 하순께 씨를 뿌리는 것이 좋다. 파종 전 밭을 30~50cm 깊이로 갈아 무 뿌리가 곧게 뻗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용원 소장은 "품질 좋은 무와 배추를 생산하려면 알맞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옮겨 심는 한편 초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 영농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전국 독후감 공모’ 개최

10월 말까지… 18명 선정

정읍시가 2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정읍시 한 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선정할 올해의 책을 전국에 알리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 독서문화사업인 '한 권의 책'을 전국 단위로 넓혀 독자들이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과 감상을 나누도록 한다.

공모 대상 도서는 부문별로 다르다. 대학생과 일반인은 구분권 작가의 '도봇시대, 인간의 일', 중·고등학생은 이금이 작가의 '너를 위한 B컷', 초등학생은 임연옥 작가의 '다 숨겨 버릴거야'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전국의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자신의 부문에 해당하는 책을 읽은 뒤 생각과 느낌을 담은 독후감을 작성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책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글의 독창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 18명을 선정한다.

부문별 최우수상 3명과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에게 정읍시장상과 총 2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과 도서관 전시, 독서문화 행사 등을 통해 소개한다. 전국 독자들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한 권의 책' 사업을 알리는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과 원고 분량,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정읍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 열려

다이어트 10% 추가 혜택

익산시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중앙동 치킨로드 일원에서 '2026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닭 하면 떠오르는 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알리고 중앙동 치킨로드와 문화예술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제에는 하립과 다사랑, 세븐브로이 등 지역 향토브랜드를 비롯해 치킨로드 사업자,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 지역 치킨업체 및 푸드트럭 등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행사장에는 총 20개의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여름밤의 흥을 더할 공연도 펼쳐진다. 첫날인 28일 오후 7시 개

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쿨의 김성수가 무대에 오르고, 29일에는 가수 김현정의 공연이 이어진다.

원도심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축제 기간 행사 참여업체에서 익산사랑상품권 '다이어트'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다이어트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사장에 응급의료부스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구간 교통통제와 임시주차장 운영 등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김종화 시 소상공인과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즐기며 중앙동에서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47년 우정 군산-타코마, 교류협력 강화

시장 취임 축하 서신 전달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4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준 이(Jun Yi) 타코마-군산 자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내외가 군산시청을 방문해 김재준 군산시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준 이 부위원장은 앤더스 이븐스(Anders Ibsen) 타코마 시장이 김재준 군산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보낸 서신을 직접 전달했다. 이븐 시장은 서신을 통해 오랜 자매도시인 군산시와의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재준 군산시장과 준 이 부위원장

내외는 1979년 자매결연 이후 이어온 체육 친선경기, 35주년 기념 한지페션쇼, 40주년 기념 상호 방문 등 교류의 발자취를 되짚고, 향후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타코마시의 축하와 지속적인 우호협력 의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산시와 타코마시는 항만도시이자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해 혁신과 개방을 통해 발전해 온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타코마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중한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내달 5일 영유아 부모 대상 특강

“육아로 지친 마음 돌본다”

익산시가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잠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내달 5일 오전 10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더함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연은 윤대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주제로 육아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영유아기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만큼 양육 부담도 큰

시기다.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하다 보면 부모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 상태를 살피기 어려워 정서적인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방법부터 일상에서 정서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윤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방송과 저서, 대중 강연 등을 통해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인구구조 대응 전략 마련

기본계획 심의·의결

5년간 단계적 정책 추진

익산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민 삶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2027~2031)'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의 인구 현황과 정책 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단순한 인구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

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는 동시에 익산을 방문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인구정책 사업을 바탕으로 △정주환경 개선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관계·체류인구 확대 △체류관광 활성화 △청년·농촌 분야 신규·기금사업 등을 보강했다. 이를 9개 실천과제, 64개 주요 사업으로 체계화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최근 지역 인구 흐름에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인구는 26만 6,0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59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30대 인구는 340명 증가한 2만 7,509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증감도 381명 증가를 기록했다.

시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입·전출에 따

른 사회적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광·문화·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익산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류 기반과 콘텐츠를 확충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날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인구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익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빈틈없는 ‘여름철 도로 정비’ 총력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군산시는 잦은 강우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각종 도로 위험 요소와 여름철 무성한 잡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절기 도로 집중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해빙기 이후 도로정비를 위해 현장 대응 도로보수원 13명으로 구성된 3개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시 상황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도로 파손 보수 및 인도 정비 요청 등에 대해 신속

한 현장 확인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실제로 2026년 8월 현재까지 도로 파손(소파) 보수 2,567건, 인도 보수 188건 등 총 2,755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변 제초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도로변과 인도 주변 유충지를 중심으로 잡초류가 빠르게 자라면서 안전사고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접수된 제초 관련 민원은 2026년 8월 현재 총 101건에 달한다. 이에 시는 도로보수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도, 인력 및 장비 투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 순찰과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 신규사업 발굴 ‘온 힘’

새만금 부안권역 산업 용지 최종 확정 전 의견 적극 반영 주문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대응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 20일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사업 35년 역사상 최초로 부안권역 산업용지가 반영됐다”며 “부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계획안이 실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각 부서에 새만금개발청 주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새만금과 부안의 발전방향, 산업용지 조성계획,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변경안에 군에 필요한 기능과 개발시기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피고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설명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 군수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 부서가 소관 업무와 연계해 새만금 신규사업을 발굴·건의하고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실행과제 구체화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권 군수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행정절차상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할 사항까지 함께 발굴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진=부안군>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올해도 3분기 중반에 접어든 만큼 각 부서에서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권 군수는 “아직 발주되지 않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기관 협의, 예산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은 예산집행 부진과 군민 불편,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서장들이 소관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정책대상’ 수상 3년 연속 쾌거

창업·성장·주거·정착 등 쫄쫄한 지원 성과

고창군이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제9회 청년친화현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청년친화현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참여 확대 등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창군은 지역 여건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창업가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연계해 청년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의 강점인 농업자원을 청년정책과 접목해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고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에 관심 있는 외부 청년들이 고창을 탐색하고 체류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 네트워킹과 지역주민·지역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해 관계인구 형성에 있어서 실제 지역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 기반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청년 간담회와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함께 참여하는 청년 참여형 정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3년 연속 청년친화현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기존 청년정책을 한층 체계화하고, ‘청년 유입→창업→성장·판로→주거·금융→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고창형 청년 성장·정착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3년 연속 청년친화현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온 고창군의 청년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창업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쫄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찾아오고, 도전하고, 성장해 정착하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관광명소, 다양한 매력 인정”

명소발굴 프로젝트 선정

고창군이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에서 지역 관광 명소들이 체험·레저, 문화·예술, 미식, 자연·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소발굴 100×100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8개 분야 100개 여행 주제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상하능원 △선운사 템플스테이 △고창왕성 △고인돌유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고창 청보리밭축제 △넓은 들 학원농장 △고창 명가풍천장아·선운산풍천장아거리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고창 랍사르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등이 선정되며 고창이 가진 다양한 여행 매력을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세계유산과 산·갯벌

등 자연자원부터 문화·문학, 농촌체험, 미식, 축제까지 서로 다른 성격의 관광자원이 고르게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선운사와 고인돌유적, 상하능원, 넓은 들 학원농장 등은 여러 여행 주제에 중복 선정되며 하나의 관광자원에서도 여행자의 세대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고창 관광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를 세계유산·생태·농촌체험·미식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선정은 고창의 세계유산과 자연, 문화, 미식, 농촌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이 그 매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고창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1부터 1시책’ 성과 점검

김제시는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1부서 1시책’의 추진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렴정책추진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읍·면·동장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정책협의체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하기 위해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지금까지 총 3회차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는 △문화관광과의 ‘대규모 공사현장 청렴·안전관리제 운영’, △정보통신과의 ‘민관이 함께 있는 디지털 청렴 연결고리, Clean-IT커넥트 추진’ △새만금전력과의 ‘청렴 리버스토크’ △교통행정과의 ‘청렴소통 프로

젝트’ △치매재활과의 ‘치매 치료관리비 처리과정 사전 안내를 통한 행정투명성 강화시책’, 등 부서별 청렴시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이 공유됐다.

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에 우수 시책에 대해 평가해 시상하고 우수 시책은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 청원 참여하는 청렴 교육을 실시해 “청렴 청정도시 김제”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청렴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준 전 청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며, “부서에서 발표된 우수시책이 시 전체 청렴 정책으로 확산시켜 부패 취약 분야를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의회, 읍·면 애로사항 청취

이장협의회장과 소통 간담회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실에서 관내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읍·면별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협의회장들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9월 독서의 달 풍성한 행사

작가와 만남~사진 공모까지

김제시립도서관은 내달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 사진 공모 전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8일에는 김제, 이맘때~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 작가가 시민들과 만나 ‘마음 투지’를 주제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시립도서관 추억 사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부터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 등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이번 사진 공모는 시민들의 시선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추억이 쌓이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독서의 달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며 “9월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책과 사람, 공간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독서문화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행안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운영

부안군은 24일 행안면사무소에서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평소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로 10년째 운영중이다.

이날 행안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상담에는 부안군 마을세무사가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생업으로 바쁘고 세무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무료 재능기부로 봉사해 주시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밀한 세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해풍고추 직거래 한마당 성료… 무료택배 지원 ‘호응’

2026 고창해풍고추 직거래 한마당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2026 고창해풍고추 직거래 한마당은 고창해풍고추의 유통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1~23일(3일간)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 해풍고추 품평회, 김치 시식 코너, 농특산물 전시판매, 소비자 무료택배 지원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창해풍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행사기간 진행된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에서는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의 건고추를 판매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올해 신설된 소비자 무료 택배 지원은 건고추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송진의 고창해풍고추축제위원장은 “고창해풍고추 직거래 한마당을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매년 발전하는 모습으로 고창해풍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자봉센터,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봉사 인력을 확충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문봉사단 양성 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 서비스를 전개해 왔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 입력 과정과 실적 관리 요령을 상세히 안내해 행정적 마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각 활동처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은 자리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센터는 참석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집중’

부진지표 점검 및 신규

협업·상시 지표 중점 관리

김제시는 24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실적 지지체 합동평가 대응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표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세 번째 열린 전략 보고회로, 67개 정량지표를 담당하는 25개 부서 47개 팀이 참여했으며,

서해영 기획감사실장의 추진상황 총괄 보고에 이어 지표 담당 부서장이 직접 현재 실적과 문제점,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미달성 지표는 부진 원인과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을 분석해 실적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업지표는 부서 간 역할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는 등 남은 기간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올해 합동평가에서 ‘전북 3위’를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전략 보고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표 담당자 컨설팅, 합동평가 시스템(J-VPS)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해 평가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지금부터는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보다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부진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남은 기간 지표 달성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치매안심재산관리’ 첫 대상자 선정

치매어르신 재산 피해 경제적 학대 예방

고창군에서 홀로사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사례가 선정됐다.

24일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최근 지역 치매어르신(69세) 한 분이 첫 신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어르신은 고창군에 홀로 거주하며 2024년 11월부터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있

었다.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서 재산관리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치료·요양·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재산상 피해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

며,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곳곳 현안 전수점검 2(題)

주민혁신연대, 해외연수 보조금 전수조사

완주군의회 원내교섭단체 ‘주민혁신연대’(대표의원 윤여연)가 완주군이 지원하는 해외연수 관련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완주모임이 한 해외연수 보조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민혁신연대는 완주군이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해 온 해외연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 목적과 실제 연수 내용의 부합 여부 △보조금 지원 규모와 자부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 △연수 결과와 성과관리 실태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 등이다.

특히 해외연수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해당 분야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 사업별 지원 현황을 분석해 완주군의 해외연수 보조사업 전반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여연 주민혁신연대 대표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단체나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완주군이 지원해 온 해외연수 보조금 전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 1500동 전수 실태조사·관리 강화

완주군이 농촌 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완주군은 올해 추정 빈집 1,500동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기존에 파악한 1,500동의 빈집 현황을 재확인하고, 목록에 누락된 추가 빈집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내 빈집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기존 목록에 없는 빈집을 적극 조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빈집

은 향후 빈집 철거지원사업, 특정 빈집 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완주군은 이번 조사가 향후 지원사업 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이장들은 기존 추정 빈집 1,500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빈집 여부를 조사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존 조사대상 1,500동을 반드시 확인하고, 목록에 없는 빈집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추어식품, 홍콩박람회서 ‘완판’ 성과

홍콩식품박람회 3년 연속 참가 호평 출품물량 전량 조기 완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 ‘2026 홍콩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 2026)’에 참가해 준비한 출품물량을 전량 완판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올해로 3년 연속 홍콩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미꾸야는 지난 2년간 축적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 이번 박람회에 임했다. 그 결과 준비한 수량을 조기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해외 시장에 첫선을 보인 상온 간편식 추어탕 ‘온추어탕’은 남원산 미꾸라지와 민물새우를 활용한 감칠맛을 바탕으로,

별도 복잡한 조리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K-푸드 및 건강 보양식에 관심이 높은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함께 출품한 ‘미꾸야 꾸이랑’은 추어 페이스트를 넣어 구운 저지방·고단백 어포 스넵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홍콩식품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식품 기업과 바이어, 유통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대표 국제 식품 전문 전시회로, 미꾸야는 이번 박람회 완판 기록을 통해 단순한 식 홍보를 넘어 추어 가공식품의 글로벌 상업성과 유통 확대 가능성을 현지에서 입증해 냈다.

남원농업기술센터 및 사업단 관계자는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을 적극 추진해 남원 추어식품의 해외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장류축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관광 전문가 학술포럼 개최 축제콘텐츠 경쟁력 강화 논의

순창군이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제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21일 전주 시그니처 호텔 1층 아트홀에서는 ‘글로벌 축제와 지방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 지방대학 대학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관광콘텐츠학회(학회장 류인평)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웰니스관광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과 지방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



<사진=순창군>

된 순창장류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는 순창장류축제가 예비 글로벌축제로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축제 현장에 적극 반영해 순창장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정서·가족모임·생활 맞춤 지원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살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충격과 슬픔뿐만 아니라 죄책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후 행정처리와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에 동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센터는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해 지역사회 소외를 막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적절히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춘향애인 포도’ 2년 연속 베트남 수출길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대표 농산물인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남원시는 24일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춘향애인 고랭지 캠벨포도’ 베트남 수출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 정대환 지리산농협 조합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했다.

올해 수출 규모는 총 10톤, 약 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첫 수출 물량은 3,120kg은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1kg, 1.5kg, 3kg 단위의 소포장



<사진=남원시>

로 구성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시는 이번 연속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지 판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발효문화메이트’ 탐방 외국인·한국인 30명 체류 활동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국제교류 커뮤니티 HiBA(대표 박철호)와 연계해 외국인 및 한국인 30명이 참여한 ‘순창 문화메이트 발효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지역을 함께 경험하고 알리는 ‘문화메이트’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및 한국인이 함께 여행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순창의 자연과 발효문화를 공유하는 관계 기반 관광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천산 군립공원 탐방을 비롯해 전통 막걸리 만들기, 순창 로컬마트 장보기, 명인과 함께 고추장만들기, 순창발효테마파크 탐방 등에 참여하며 순창의 자연과 음식, 발효문화를 함께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순창에서의 경험을 개인 SNS와 외국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직접 순창을 알리는 자발적인 관광 홍보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예비 글로벌 순창 장류축제’를 소개해 순창의 장문화와 축제를 자연스럽게 알렸다.

발효관광재단 선운숙대표는 “앞으로도 문화메이트 프로그램과 장문과 글로벌 엠버서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순창의 발효문화와 관광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남원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우제류(소·염소)를 대상으로 ‘26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 약 45,000두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 전두수가 대상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은 농가 규모별로(소규모, 중규모, 전업농가) 실시하며, 소규모농가는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주사를 실시하고 중규모농가는 백신은 무상 공급이나 자가접종이며 전업농가는 남원축협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가접종 해야 한다. *소규모(소 50두 미만, 중규모(50 이상 100두 미만), 전업(100두 이상)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후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 60%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구제역 혈청예찰 검사결과 26년 7월 현재, 남원시(전북)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9.3%(97.0%), 염소 93.7%(93.0%), 돼지 95.2%(93.5%)로 확인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연다

완주군이 제14회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를 맞아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고산자연휴양림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 등 어린이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 부문은 △미취학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으로 나뉘며, 그림의 방향과 재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대회 주제는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행사 당일 발표한다.

우수작은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19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1명, 최우수상은 완주군수상 및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상 각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9월 17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한 사전 신청으로 진행하며, 모집 정원 내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광한루원-원도심 ‘K-푸드로드’ 추진

11억 투입 미식관광 플랫폼 구축 원도심 상권 연계 관광 활성화

남원시가 지역의 대표 미식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이끌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남원 미식관광 플랫폼 ‘흥미로(興米路)’를 구축한다.

핵심 대상지는 광한루원-경외상가-추어거리-월광포차를 연결하는 약 1km 구간으로, 미식자원 조사와 대표메뉴 개발, 팝업·페스타, 문화예술 및 이간체류 콘텐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흥부제와 연계한 ‘흥미로 11일장’을 비롯해 ‘한입 남원 20선’ 미식장터, 달빛 미식장터(야간), 미식 NPC 거리, 지역 음식점 대표메뉴 개발, 경외상가 순환형 팝업스토어, 노포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의 미식 체험이 실제 음식점 방문과 원도심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충모 남원시장은 21일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외상가 일원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



<사진=남원시>

는 K-푸드로드, K-뷰티, 동부권 미식관광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 필요성도 공유됐다.

시는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공간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경천 가을꽃 경관조성 앞두고 새단장

순창고·두물머리공원 구간 정비 계절별 특색 살린 관광명소 육성

순창군이 가을꽃으로 물들 경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순창고에서 두물머리공원까지 이어지는 경천 일원에서 ‘2026년 경천 가을꽃 경관조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및 직원 165여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구간별로 나뉜

가을꽃 조성지 주변의 풀을 제거하고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정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현장을 찾은 최영일 군수는 이른 아침부터 환경정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천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을꽃과 어우러진 하천 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경천과 양지천 일원에 추진 중인 가을꽃 경관조성의 하나로 마련됐다. 군은 계절의 특색을 살린 경관을 조성해 순창의 대표 관광지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을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 경천 일대가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군민들에게는 일상 속 힐링터,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경천과 양지천을 중심으로 계절별 특색을 살린 경관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꾸준히 정비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가꿔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의회, 고립·은둔 청년 지원 근거 마련

최광호 의원 지원 조례 대표발의 5년 단위 기본계획·조사 추진

완주군의회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 이 최근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



최광호 군의원

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정서지원 및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단순한 상담이나 정서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기개발, 정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호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치행정위원장에서 기존 청년정책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각각의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나의 큰 틀에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소양면지사협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완주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희홍, 배귀순)가 지난 21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현장 방문이 많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응급 상황 대응 수칙,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심폐소생술을 직접 마네킹을 누르며 배워보니 위급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배귀순 소양면장은 “이 교육을 통해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대산면지사협
마을 곳곳에 안전한 불빛 밝히

고창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민)가 지난 21일 마을 진입로와 취약계층 가정에 안전을 위한 불빛을 더했다.

마을 비석에 야간 화살 표시등을 설치했고, 태양광 지주대를 설치해 야간에도 마을 입구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35세대에도 태양광 LED 벽부등을 설치했다.

김영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마을 곳곳과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불빛을 밝힌 만큼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영 대산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제37회 미스변산 수상자 홍보대사 위촉

부안 매력 알리기 ‘앞장’

부안군은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7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본상 수상자 6명(‘진’ 김민주, ‘선’ 윤다소, ‘미’ 최서윤, ‘전북도민일보’ 김정현, ‘부안잡방’ 천희원, ‘케이네이저’ 안유나)을 부안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부안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부안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홍보대사의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와 계절별 여행지, 축제 등 온라인 관광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부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



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부안=신상수 기자

서원필 (주)서정에너지 대표, 진안군에 2,000만원 기탁

(주)서림정밀안전진단 진안군에 500만원 전달

(주)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와 (주)서림정밀안전진단 임병찬 대표가 지난 21일 진안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기탁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주)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2,000만 원 기부에 이어 올해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대 한도 금액인 2,0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속적인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금은 진안군이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천지구 복합문화관광장 구축사업’에 전달되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주)서림정밀안전진단 임병찬 대표도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임 대표는 지난해 500만 원, 올해 초 1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기부로 진안군에



대한 애정을 이어갔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만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산책로 환경정비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산책 구간인 만경능계 법면 및 주변 일원에서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도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 시간에 작업을 실시해 위원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덩굴 등을 제거하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법면과 도로변 일대를 말끔하게 정비했다.

김용태 주민자치위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지역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왕정동 어린이집 원아들, 우유팩 교환

남원시 왕정동에 소재한 공공형 어린이집 마리몬테소리 어린이집 원아 88명이 왕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우유팩 교환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보호 실천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이 일상에 자주 사용하는 우유팩을 그냥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 모아 재활용 자원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시됐다.

어린이집에서 우유를 마신 뒤

모은 200ml 우유팩 1,065개를 화장지로 바꿔보면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익히며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우유팩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원을 아껴 쓰고 다시 활용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배웠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성내면 부녀회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 구슬땀

고창군 성내면(면장 이남례)이 지난 21일 관내 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내면 일대에서 아름다운 고창 가꾸기 위한 꽃밭 풀매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녀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 꽃밭 내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박경년 부녀회장은 “성내면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성내면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사계절 내내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성내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삼학동 ‘두시에짜글이’ 관내 36호 착한가게 가입

군산시 삼학동(동장 문양순)은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전덕배)와 함께 두시에짜글이(대표 양희경)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두시에짜글이’는 대표 메뉴인 짜글이를 비롯해 향정살 두루치기, 삼겹살, 아나고볶음, 오징어볶음, 아귀탕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점이다.

양희경 대표는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덕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 속 필요한 안전수칙

화재 안전편



소화기 구비하기



등산 시 취사금지



담뱃불 잘 끄기



방화문 닫아두기



조리 중 자리비움 금지

〈一事一言〉



세울세울, 세월이 운다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어떤 시절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눈에 남은 풍경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코끝을 스쳤던 냄새와 허끝에 남은 맛으로 되살리기도 한다. 오래전 들었던 노래 한 소절에 잊고 있던 사람과 풍경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의 기억은 오감을 따라 저장되는 모양이다. 아무리 무더웠던 여름이라도 그 시절이 행복했다면 더위보다는 함께 했던 사람과 즐거웠던 일이 먼저 떠오른다.

요즘 한낮의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여름은 귀로 먼저 찾아온다. 나무마다 붙어 울어대는 매미 때문이다. 수많은 매미가 한꺼번에 울기 시작하면 고장 난 기계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듯하다.

가뜩이나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여름의 정취보다 견디기 힘든 소음에 가깝다. 밤까지 울음이 이어지는 날이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매미를 없애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고 한다. 사람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매미지만 사람들은 매미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매미에게도 사정은 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내다가 땅 위로 올라와 나무를 타고 허물을 벗은 뒤 비로소 날개를 얻는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수컷 매미가 온 힘을 다해 우는 것은 짝을 찾기 위해서이다. 매미에게는 종족을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구애인데 사람의 귀에는 한여름의 소음으로 들린다.

밤에도 환한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은 매미의 밤낮마저 흐려놓는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시의 밤에서 매미도 제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매미 소리는 지금과 조금 다르다.

70~80년대 농촌에서 자라던 아이의 기억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산길을 걷다 보면 길가 숲에서 ‘쭈, 쓰르르, 쭈’ 하는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숨어서 침을 뱉는 것 같아 아이들은 그것을 ‘침 뱉는 매미’라고 불렀다. 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 수풀을 헤집고 찾아보면 무지갯빛이 감도는 작은 날개를 가진 매미가 붙어 있었다. 지금은 좀처럼 그 소리를 듣기 어렵다.

한낮의 뱃나무에는 또 다른 녀석이 있었다. 뜨거운 햇볕을 더욱 뜨겁게 만들 듯 ‘쉴, 쉴’ 하고 울어댔다. 우리는 그냥 ‘쉴쉴’이라고 불렀다. 서울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저렇게 운다며 아이들이 끼리 웃기도 했다.

이제 와 들으면 서울을 못 가서 우는 쉴쉴이가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이 아쉬워 ‘세월, 세월’ 하고 우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매옴, 매옴’ 울던 참매미 소리까지 더해지면 여름 산과 들에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가득했다.

그 많던 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매미가 사라진 것인지, 내가 그 소리를 구별하던 귀를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린 시절에는 매미 한 마리의 울음에도 이목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지금은 수많은 매미가 한꺼번에 울어도 먼저 소음이라는 생각부터 든다. 세월을 살아가며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달라진 것이다.

머지않아 이 지독했던 여름도 물러갈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매미 소리가 뜸해지고 풀숲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그제야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여름 내내 제 세상을 차지했던 매미가 귀뚜라미에게 계절의 바통을 넘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시끄럽다며 귀를 막았던 매미 소리도 조금은 그리워질까? 어린 시절에는 추억을 만들던 소리였고 이제는 무더위를 알리는 소음이 된 매미 울음. 어쩌면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매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하나에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어린 날의 귀인지도 모른다.

전북교육청 ‘햇빛이음학교’, 실패한 태양광 전철 뱀아선 안 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인 ‘햇빛이음학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학교 전기로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상 선정과 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성,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세 낭비와 교육현장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전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에서도 심각한 지역이다. 학생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고 향후 통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학교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태양광 고정시설을 설치했다가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시설 이전과 철거, 관리에 또다시 예산이 들어간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예산의 비효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최소한 향후 10~20년간 학교 존립 가능성과 시설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투자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타 시·도 학교 태양광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의 태양광 설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설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20년 이상

사용하게 될 시설의 정기점검과 부품교체, 화재 예방, 긴급상황 대응을 누가 책임지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 부담을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특히, 사업 발주 과정의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교육지원청별로 분산 발주한다면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과정,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사업이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제각각 시공돼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상 학교의 존립 가능성, 투자 대비 경제성, 구조·화재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입찰 방식까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된 학교는 과감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학생 안전과 혈세의 효율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 타 시·도의 시행착오가 이미 있었다면 전북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햇빛이음학교’가 친환경 교육정책의 모범이 될지,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남을지는 지금 전북교육청의 냉정한 재검점에 달려 있다.

▲오늘의시

각 / 박남준

칼을 들고 목각을
해보고서야 알았다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쫄쫄히 햇빛을 모아
짜 넣던 시간들이
한 몸을 이루며

이쪽과 저쪽

밀고 당기고
뒤틀어가며 엇갈려서
오랜 나날
비틀려야만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 는 것

제 살을
온통 통과하며
상처가 새겨질 때에야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 노래’ 등의 시집과 ‘쓸쓸한 날의 여행’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평화적 집회를 위한 집회참가자의 자세



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다. 경찰 역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 현장의 질서와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평소보다 작은 부주의도 건강상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이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것

이 좋다. 모자나 양산 등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버티지 말아야 한다. 즉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주변 경찰관이나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안전을 살피는 배려이다. 주변에 장시간 서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관이나 안전요원에게 알려주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관들도 여름철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현장에서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참가자를

발견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과 목소리도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물 한 잔, 그늘에서의 잠깐의 휴식, 그리고 서로를 살피는 관심.”

무더운 여름날 집회 현장에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인다면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찰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겠다.

올여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전북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엽니다.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구독신청 063-282-9601

홈페이지www.jeonbuktimes.co.kr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론지

‘군산북페어 2026’ 개막!



군산회관·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 일원 국내외 창작자·독립출판사 등 총 204팀 참여

책을 매개로 다채로운 취향과 새로운 이야기가 만나는 ‘군산북페어 2026’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군산회관과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북페어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번 북페어는 국내외의 창작자, 독립출판사, 동네책방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4팀이 참여한다.

단순한 북마켓을 넘어 북토크, 진(Zine) 전시, 독립만화 등 오늘날 출판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에는 다채로운 강연이 독자들을 맞이한다.

29일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저자 박해천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바깥에서—군산의 시간’을, 소설가 김금희와 뮤지션·작가 요조가 ‘삶의 물결을 읽는 방식—우리가 나누는 문장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아이디어 북스 동아시아 담당 줄리 오니시와 일본 교토의 서점을 운영하는 야마시타 겐지가 해의 출판과 서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30일에는 국내 주요 북페어 운영자들이 모여 오늘날 북페어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는 주제로 연속 토크 ‘북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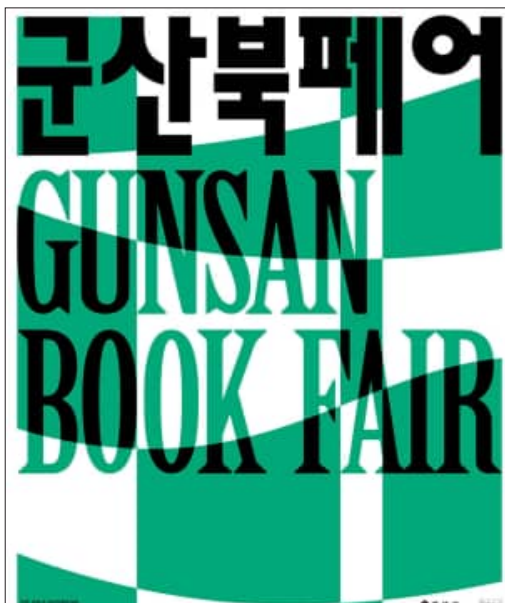
어, 안녕하십니까?’를 진행하며, 본행사 앞 28일에는 건축 출판의 전환기를 조명하는 사진 포럼이 마련된다.

이색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관객이 입맛대로 텍스트를 골라 소장할 수 있는 ‘텍스트 뷔페’를 비롯해, 일본·인도네시아·한국 3개국의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는 ‘HELLO, ZINE’, 책이 완성되기까지의 다이어그램과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서의 책이 가지는 미학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오해진의 ‘데미북 전시’가 군산회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지역 서점·출판사·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만의 독자적인 출판 및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군산빌리지’와 함께, 올해 최초로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에 독립만화 마켓 ‘만화당’이 신설되어 다채로운 만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 도서전과 북페어가 다변화되는 흐름에 발맞추어, 창작자와 독자가 만나 깊이가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주말 군산에서 책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취향과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금희 작가



요조 작가

26.8.29.-30.
군산회관

군산북페어 2026

gsbf.kr @gsbf.kr

주최·주관: 군산시, 군산시립도서관 후원: 군산서점출판물유통센터

프로그램 가이드 PROGRAM GUIDE

① 포럼
별틀: 건축 출판의 오늘과 내일
발제: 박정현, 박세민, 박승찬
일시 8월 28일(토) 11:00-18:00
장소: 그래픽북스(군산시 구영4길 16-22층)

② 주제 연속 토크(포럼)
북페어, 안녕하십니까?
연사: 마루, 양주아, 원경봉, 김미선, 김광철
일시 8월 30일(일) 11:00-17:00

③ 초청 토크 I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바깥에서—아파트의 시대, 군산의 시간
연사: 박해천(콘크리트 유토피아 저자)
일시 8월 29일(토) 12:00-13:30

④ 초청 토크 II
삶의 물결을 읽는 방식—우리가 나누는 문장들
대담: 김금희(작가) × 요조(뮤지션·작가)
일시 8월 29일(토) 14:00-15:30

⑤ 게스트 토크 I
국제 유행이란 무엇일까?
연사: 줄리 오니시
(아이디어 북스 동아시아 담당)
일시 8월 29일(토) 16:00-17:00

⑥ 게스트 토크 II
호호호호의 22년과 일본 서점의 현황
[대담: 아이디어] 겐지(호호호호 대표)
일시 8월 29일(토) 17:30-18:30

⑦ 만화당 (만화 마켓) 토크
주최 및 게스트 연속 토크
장소: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 (군산시 월곡3길 8)

⑧ 전시 연계 토크
데미북(dummy book)—그래픽 디자이너 오해진 아카이브 전시(展)
장소: 군산회관 3F (전시실)
일시 8월 30일(일) 16:30-18:00

전시
데미북(dummy book)—그래픽 디자이너 오해진 아카이브 전시(展)
장소: 군산회관 3F

특별 섹션
쓰게 요시하루 열람상: 기둥(기둥) 독립 만화 출판의 계보
장소: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 2F